

손기정 기증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의 보존처리

박학수 | 206호 기증문화재실 | 18:00~18:30

손기정 선생이 기증한 보물 제904호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이하 투구)는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에서 만들어졌으며, 1875년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이 투구는 그리스의 브라디니(Vradyni) 신문사가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1회 올림픽의 마라톤 우승자에게 부상으로 제공하였으나, 베를린 올림픽 위원회는 이를 손기정 선생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손기정 선생, 한국 올림픽 위원회, 언론사 등의 반환 노력에 의해 1986년 8월 17일에 서독 올림픽 위원회가 손기정 선생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손기정 선생은 이 투구를 개인의 것이 아닌 민족의 것으로 생각하여 1994년 8월 8일에 국가에 기증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증자의 뜻에 따라 이 투구를 기증문화재실에 전시하여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보존 상태 점검 과정에서 코가리개의 접합부위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가리개를 다시 붙이고 약한 부위를 보강하기 위하여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보존처리를 하였습니다.

보존처리에 착수하기 전에 X선 조사 등을 하여, 여러 개의 조각을 접합하고 균열이 있는 곳도 있어서 약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존처리는 접합부에 균열이 발생한 코가리개를 본체에서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분리한 코가리개와 본체는 녹이 더 생기지 않도록 안정화 및 보호 코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있어서 약한 부위는 합성수지를 침투시키고 직조 유리섬유를 덧대어 보강하였습니다. 코가리개와 본체를 접착제로 접합한 후 접착면의 바깥쪽은 직조 유리섬유를 발랐으며 안쪽은 타이타늄(Ti)판을 덧대어 접합하여, 접합 부위에 균열이 생겨 코가리개가 처지지 않도록 보강하였습니다. 이어서 바깥쪽의 직조 유리섬유 위를 합성수지로 덮은 후 문양과 돌기를 복원하고 주변과 유사하게 색칠

을 하였습니다. 보존처리를 통하여 투구가 안정한 상태가 되어, 손기정 선생의 뜻을 이어 다시 전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 1. 보존처리 전



그림 2. 보존처리 후



제54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5월 31일)

테마전 <고성 옥천사 괘불>(2)

- <시왕도>(1744년), <동자상>(1670년), <지장시왕도>(1717년) -

유경희 | 203호 불교회화실 | 18:00~18:30

이번 테마전에는 옥천사에 소장되어 있는 <시왕도(제5염라대왕도)>(1744년), <동자상童子像>(1670년),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1717년)를 함께 공개하여 옥천사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한다. 먼저 <시왕도(제5염라대왕도)>(1744년)>는 옥천사에 봉안되어 있는 10폭의 시왕도 중 한 폭이다. 이 불화의 상단에는 염라대왕閻羅大王을 그리고, 하단에는 지옥장면을 배치하였다. 수염을 쓰다듬으며 재판에 임하는 왕의 모습을 한 염라대왕과 그 옆에서 보좌를 하는 판관, 사자, 귀왕, 옥졸들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고 하단의 지옥장면 사이에는 구름을 포치하였다. 하단의 장면에도 여러 장면이 그려진다. 그 가운데 머리채를 이끌린 채 거울 앞에 선 죽은 자는 전생에 살생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 큰 절구에 넣어져 고통당하는 망자,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불화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서 착하게 살도록 권계하도록 한다. 이 불화가 조성되었던 해에 옥천사에서는 대웅전의 <영산회상도>, 측벽에 걸리는 <삼장보살도>, 명부전의 <지장보살도>와 <시왕도>를 합하여 총 13점의 불화가 조성되었습니다. 불화의 제작을 총괄한 화승은 효안曉岸이라는 스님이였다. 이 스님의 이름이 <지장시왕도>와 시왕도 중 가장 마지막 화폭인 <제10오도전륜대왕도>에 ‘등계登階 효안’ 이라고 적혀 있어 당시 매우 존경받는 위치였음을 알 수 있다.

<시왕도>와 함께 명부전에 봉안되었던 동자상은 머리를 땅고 직령直領이 곧은 옷을 입었다. 봉황을 든 동자와 극락조를 든 동자에게는 돌 위에 붉은색, 녹색으로 채색하여 옷을 입혔다. 1670년 조성한 이후 1777년에 대법당과 명부전을 중수할 때 다시 색을 입혔다는 기록이 있다. 지장시왕의 전거典據가 되는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에 의하면 동자는 하나의 작은 악업이라도, 작은 선업이라도 놓치지 않고 적는다고 하여 선동자善童子, 악동자惡童子라고 불렸다고 한다. 동자는 명부의 공간에서 시왕十王과 판관判官의 일을 돕는다고 한다. 선명한 채색이 잘 남아있는 동자상의 면모를 통해 17세기와 18세기 옥천사를 조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737년작 <백천사 지장시왕도>를 살펴볼 수 있다. 화면 중앙에는

두광과 커다란 신평안에 지장보살을 배치하였고 보살의 무릎 아래쪽에 합장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있다. 인물군의 짜임새 있는 구성, 중간색의 밝은 채색과 섬세한 필선, 먹의 선염효과 면에서 우수한 화격畵格을 느낄 수 있다. 화기에 의하면 이 불화는 ‘백천사百泉寺 도술암兜率庵’이라는 봉안처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백천사 도술암은 옥천사가 위치한 경남 고성에 있었던 사찰이 아니라 사천지역에 위치한 절이다. 고성에서 사천, 남해 등 경남지역은 옥천사 문중의 승려의 활동범위에 있었던 사찰이었다. 그러므로 <백천사 지장시왕도>는 18세기 옥천사의 사세와 문중 승려들의 활동을 알 수 있는 문화재로 주목된다.



그림1. 〈동자상〉, 조선 1670년, 돌에 색, 높이: 47.3cm(좌), 44cm, 옥천사

제54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5월 31일)

2017년 제1차 일본실 정기교체 「1711년 조선통신사와 도카이도 53차」 연계

조선통신사의 길-도카이도東海道 53차次

정미연 | 311호 일본실 | 19:00~19:30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총 열 두 차례의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했다. 초반 3회에 걸친 통신사는 임진왜란 조선인 포로의 송환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답겸 쇄환사回答兼刷還使’였으며, 그 이후의 통신사는 주로 에도 막부의 새로운 쇼군 將軍의 취임이나 후계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이었다.

에도 막부는 1709년 제6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德川家宣, 1662~1712]가 쇼군 직을 승계하자 대마번주對馬藩主 소 요시미치[宗義方, 1684~1718]를 통해 조선에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숙종肅宗(1661~1720)은 정사에 조태억趙泰億(1675~1728), 부사에 임수간任守幹(1665~1721), 종사관에 이방언李邦彦을 각각 임명하고, 497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했다.

『동사일기』는 바로 이 1711년 조선통신사행단의 부사副使였던 임수간任守幹(1665~1721)이 저술한 사행록使行錄이다. 사행록이란 통신사가 일본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보고 겪은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당대 일본의 사회와 문화, 역사와 지리는 물론, 당시 선비들의 對 일본 인식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롭다.

조선통신사가 해로를 거쳐 교토에 도착한 후, 쇼군이 있는 에도[江戸]까지 갈 때 이용한 길이 도카이도[東海道]이다. 그리고 이 길에 위치한 53개의 역참이 도카이도 53차이다. 조선통신사는 약 487.8km에 달하는 이 길을 따라 에도로 이동하며 보고 관찰한 풍경에 대한 감상을 사행록에 남겼다. 임수간도 『동사일기』에 도카이도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우리 관 소장 우키요에浮世繪인 <도카이도 53차>와 2016년 구입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도카이도 53차도 병풍>은 임수간이 여행한 18세기에서 백여 년 후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각 역참의 특징적인 풍경을 잘 묘사하여 『동사일기』의 관련내용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2016년 구입 소장품 첫 공개 <도카이도 53차 병풍>, 에도시대 18~19세기, 종이에 채색

특별전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1)

백승미 | 특별전시실 | 19:00~19:30

17~18세기 프랑스는 강력한 정치력으로 유럽을 이끌었습니다. 프랑스의 언어는 유럽 귀족의 필수 언어가 되었으며, 화려한 궁정 문화는 유럽 군주들의 규범이자 취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시작한 계몽사상은 근대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제공하며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18세기는 절대 왕정에서 시민 혁명으로 이어지는 격변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특히 복식 문화에서 두드러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복식 문화의 중심에 단추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본래 십자군 전쟁(11~14세기)을 계기로 서양에 처음 들어온 단추는 본래의 기능적 역할은 약해지고 점차 화려한 장식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주문 제작한 단추들은 옷보다도 비싸게 거래되었습니다.

18세기는 ‘단추의 황금기’라 불릴 만큼 온갖 종류의 단추가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초상화, 장르화, 풍자화 등의 세밀화 단추, 광물, 식물, 곤충 등을 담은 뷔퐁(Buffon) 단추, 수수께끼나 격언, 상징적 문구를 넣은 단추, 외설적인 그림이나 상형 문자를 담은 단추, 프랑스 혁명이나 노예 해방 등 신념과 시대상을 반영한 단추에 이르기까지 형태, 소재, 문양, 제작 기술 등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보는 이를 즐겁게 하고 논평을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자신의 신념을 밝히던 18세기의 단추는 개인과 사회를 담아낸 가장 작은 세계였습니다.



그림 1. <프라고나르 양식의 여성 초상>, 1760년경, 프라고나르 양식의 그림, 종이에 구아슈, 후면에 금박가공한 유리틀, © Les Arts Décoratifs, Paris



그림 2. <프랑스 혁명 단추>, 1789년경, 유리 아래 채색, 곤충, 식물, 종이를 넣은 《뷔퐁》 단추, ©Les Arts Décoratifs, Paris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4)

- 딜문(Dilmun)의 그릇

김승익 | 기획전시실 | 19:00~19:30

우바이드 토기(Ubaid pottery)로 알려진 독특한 채색 토기는 9천 년 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처음 등장했다. 1968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북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사우디아람코 소속 교사 그레이스 벌크홀더(Grace Burkholder)가 도사리야(Dosariyah) 지역에서 연대가 기원전 5300~38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바이드 토기 파편들을 약 1000점 가까이 발견하였다. 이 발견으로 아라비아 동부 지역에서 초기 이주의 역사가 더욱 상세히 밝혀지게 되었다. 아라비아 북동쪽의 어장을 확보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의 어부들은 남동쪽으로 이주하여 이 지역에 정착해 토기를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움직임은 이후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북동부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 간의 교역 관계로 발전했다. 한편, 매장지에서 주로 무덤에서 발견되는 단순한 검정색 문양으로 장식된 붉은색 계통의 토기들은 다란에서 발견되는 지역 생산품이다.

타루트 섬에서는 규산염(silicate mineral)류인 녹니석으로 만들어진 그릇 및 그릇 조각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문양이 새겨진 이 녹니석 그릇들은 고대 중근동 전 지역에서 발견된다. 대부분은 타루트에서 제작되었으나, 일부는 페르시아 남동부에서 들여온 것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문양 중 두 머리를 마주하면서 몸이 얹혀있는 뱀 한 쌍이 인기 있었다. 두 뱀을 잡고 싸우는 사람의 모습은 이란 남동부나 메소포타미아의 그릇에서도 나타나는데, 고대 중근동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상인 야수의 제왕(Master of Beasts) 모티프에서 변형된 것이다. 자연적인 회색 녹니석과 대조되는 다채로운 색을 만들기 위해 겉면에 착색한 돌들이 붙여지기도 했다. 오두막 같은 건물 형태 뿐만 아니라 윗가지 엮기(watting) 방식으로 만든 울타리의 형태도 문양으로 이용되었다. 신화 속 동물이 아닌 야생의 동물로서 독수리 문양이나 사자의 갈퀴와 꼬리가 새겨진 것도 있다.



그림1. <뱀 장식이 있는 그릇>, 타루트, 기원전 3천년기 말, 녹니석, 높이 19.5cm,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